

오피니언

光日春秋

한승헌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의 발표에 따라 로스쿨 인가경쟁은 한층 더 긴박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기존의 법과대학(또는 법학과)은 이제 무슨 강등이라도 당하거나 효용이 떨어진 듯이 안중에 두지 않는 것 같다.

법대의 미래, 오해 바로잡기

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를 둘 수 없고, 로스쿨 없는 대학에만 법대가 남게 된다고 해서 그 위상이 격하되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에는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이하 '법대', 정확히는 '법학전문대학원')

공무원을 비롯하여, 기업, 학교, 각계 민간 단체, 그 밖의 여러 분야에 법대 출신들이 맡기에 알맞은 직종은 부지기수다.

또한 로스쿨의 입시에는 대학 학부의 성적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학부의 성적이 좋아야 로스쿨 입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로스쿨은 법대 교육의 정상화 및 대학분위기에도 일조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는 '법대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이 없는 대학은 판·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대학 측에 못 끼어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조인 배출에 있어서 로스쿨과 법대의 역할은 직접이나 간접이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직접 배출이 아니면 보람도 못 느끼고 권위도 서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너무 공리적이다.

역전경우로 말하자면, 평등한 지점에 들어오는 최종 주자만을 안중에 두고, 첫 번째나 중간구간을 역주한 선수의 공로는 폄하하는 것과 닮아 있다.

로스쿨 대신 법대가 있는 대학을 마이너리그 쪽으로 여기거나, 스스로 그렇게 자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영 받음 여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전공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법대 출신의 합격률에 제한을 두는 발상 자체가 법대의 우세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관·검사나 변호사의 배출이 법학교육의 유일한 목적일 수는 없다. 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법대의 일반 대학원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법조 실무교육에 치중하는 로스쿨보다는 법대와 그 대학원에 가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법학사의 학력(실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도 얼마든지 있다. 3부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화선언' 주목된다

세계 디자인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5일 개막된다. 개막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피터 잭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선포할 '세계 디자인평화선언'이다.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인 '평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선포할 '세계 디자인평화선언'이다.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인 '평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디자인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이다.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디자인비엔날레를 창설하고 디자인산업을 4대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할 것

도 21세기 디자인문화시대를 선도하고, 광주를 '아시아의 디자인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포석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산업디자인을 비롯 패션, 건축, IT, 자동차 등 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종합디자인 전시행사다. 가구와 패션 등 일부 분야의 디자인 전시에 그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디자인비엔날레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지난 2005년 제 1회 대회는 27만8천여명의 유료 관람객을 끌어들이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시내용이 광주만의 독창성이나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번 대회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주제인 '빛'은 광주의 상징이다. 디자인비엔날레가 국민들에게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

오라가락 지역경제 통계 혼선 부추긴다

광주·전남지역 경제 통계가 조사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기업 10월 업황 전망에서 엇갈린 지표를 내놓았다.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SBHI)가 102.4로 전담에 비해 5.3%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의 업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행의 10월 업황 전망지수(BSD)는 95로 전담의 10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물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은행의 조사 대상과 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의 나을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경기 추세만은 맞아야 한다. 그런데 한쪽은 호황, 다른 한쪽은 불황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전망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쪽 통계는 분명히 현실을 잘못 반영한 것이다.

통계는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발표 기관에 따라 오라가락한다면 '통계를 위한 통계' '통계 따로 체계 따로'라는 오명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역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는 전문인력과 기술의 부족 등 통계 기반의 취약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지역 통계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가 부실하면 통계에 기초한 올바른 지역경제 정책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만 가져 온다.

지역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사회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실한 통계에 의한 각종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역통계 조사기관은 표본 및 산출방식의 표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늘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한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나이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7년 이상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 수명도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새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몇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나라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장수국가로 손꼽히는 일본의 경우 남자 78.5년, 여자 85.5년인 반면 미국은 남

자 74.8년, 여자 80.1년으로 최고 5년이 상 짧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78.6년으로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심리적·육체적 불행함이 없이 활동하며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68.6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을 살면서 10년간 각종 질병이나 정서적 불안 및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음 세기에는 평균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정부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은 이제 걸음마를 댄 수준이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말만 무성할 뿐 성과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원이 없고, 당연히 노년생활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받는 노인은 10명 중 3명도 안된다. 65세 이상 부부가 결합하는 '홀혼'도 10년새 4배나 증가해 외롭게 말년을 보내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 경제력이 없고 소외된 노인층에게 장수(長壽)가 축복일 수만은 없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기대수명



기고

김평호



문화는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방에 따라 다르며 종교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직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의 충돌이 생기고 심하면 심각한 전쟁처럼 삼백육십여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7월과 8월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탈레반의 인질 사건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문화의 충돌로 이해되어야 하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문화관이다.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는 옳고 좋은 것이며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문화는 틀리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전쟁까지 유발시킨 것이 아닐까? 어찌 문화만 그러하겠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내 잣대는 맞고 네 잣대는 틀렸다고 주장한다. 공자 같은 성인도 나이 60이 되어서 이순(耳順)이 되었다고 한다. '들어보면 갑과 을, 병의 주장이 각각 달라도 모두의 말을 다 듣고 하였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주관이 없는 분별이 보이나 갑, 을, 병의 주장은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편향된 주장이요, 공자는 전체를 이해하신 분이기 때문에 듣는 순서에 모두 옳다고 하신 것이나 내심은 부분 긍정인 것이다.

문화 또한 마찬가지다. 내 것이 옳고 좋다고 우겨 봐도 문화는 다를 뿐 시비

를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선교활동의 흔적들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간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문화재로 등록도 되지 않는 사찰에 청와대 모인 힘을 써 10억을 투자하였다는 요즈음 보도며 노대통령의 방북 수행자중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지도자들은 동참한다는데 유교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고 하니 유교의 한 사람으로 분통이 터진다. 빛고를 광주만이 아니라 내 것을 소중히 가꾸어 호남의 대표 향교이자 문화재로 등록된 광주향교 일대를 유교문화 특구로 지정하여 우리 고장의 정신적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물론 시민모두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광주향교 교학 수석직임·전 광주시 학생교육원장>

광주향교 일대 유교문화 특구 지정

누리고 있는 문화는 틀리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전쟁까지 유발시킨 것이 아닐까? 어찌 문화만 그러하겠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내 잣대는 맞고 네 잣대는 틀렸다고 주장한다. 공자 같은 성인도 나이 60이 되어서 이순(耳順)이 되었다고 한다. '들어보면 갑과 을, 병의 주장이 각각 달라도 모두의 말을 다 듣고 하였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주관이 없는 분별이 보이나 갑, 을, 병의 주장은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편향된 주장이요, 공자는 전체를 이해하신 분이기 때문에 듣는 순서에 모두 옳다고 하신 것이나 내심은 부분 긍정인 것이다.

문화 또한 마찬가지다. 내 것이 옳고 좋다고 우겨 봐도 문화는 다를 뿐 시비

여대생 취업 고비용 지출 안티갑다

6개월간 캐나다 어학연수 비용 3천만원, 영어회화학원(1년) 수강료 300만원, 면접용 명품정장 한벌 300만원, 썬글수술 50만원, 라식수술(근시교정) 200만원,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면접 당일 메이크업 합쳐서 50만원. 24세 여성의 1년간 취직 비용 내역이다. 이 취직 비용 내역이란 보면 여성 대졸자 취업이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다.

적잖은 비용이다. 어학연수 등 실력키우기와 별도로 성형수술 등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여성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면서 외모

도 실력이라는 인식이 여대생들 사이에 확산돼 막대한 취업 비용을 들이게 일반화됐다고 한다.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실력이 엇비슷할 경우 결국 면접에서 외모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게 뻔하지 않다는 인식이 광배해져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여대생들에게 썬글수술, 라식수술, 다이어트는 기본으로 통한다.

등롱급 대기도 박찬대 학원비보다 웃값, 성형수술까지 내몰리는 우리 여대생들, 취직하는데 왜 그러는지 물어보면 들어야만 하는가. <신영하·광주시 북구 대충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유대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유대인을 모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매일 이 말을 빼지라기 싫다. 유대인 정보에 관한한 한국은 상당히 취약한 것 같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뉴스를 보면 별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뉴스 방송사들은 중동 사태를 광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CNN이나 FOX 등은 연일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과 현 시사를 비교하며 해설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역사를 간추려 보자. 현실에 관한 것일 뿐 특정 종교를 다루자는 의도는 아니다.

4천년 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 먼저 젊으

이후 히틀러에 의한 대학살을 마지막으로 지난 1948년 UN에 의해 독립이 되어 1천900년간을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서 그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이 시작된다. 그들의 예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현재 시점은 이스라엘은 거의 회복했고 예루살렘까지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 TV 뉴스다.

과거 2천년동안 나라 없는 신세로 세계 각처로 흩어져 학살을 당하고 불과 50여년 전 까지만 해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겨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됐을까.

유대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아랍의 지류를 이루면서 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탄생한다. 그 후 분처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혈통을 통해 유대인이 시작되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난다. 4천년 전 시작된 두 형제간의 집안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중동 사태 아닌가.

3천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그 민족의 운명에 관한 성경 예언들 중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오지만 그를 배척하고 죽일 것이다. 그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고 세계만방에 흩어져 박해와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그렇다.

2천년 전 예수가 태어나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게 된다. 그가 죽은 직후 서기 70년에 유대인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디서나 끈이 없는 학대와 학살을 경험한다. 대략 비슷하다.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할 문제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조건이다. 공교롭게 이 조건은 여김없이 지켜져 내려왔다. 어느 때 어느 나라나 유대인을 보호하는 한은 흥했다가도 배척했을 때는 망했다. 4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여겨지는 미국을 보자. 현재 유대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국가 아닌가. 반면 일부에서 반유대인 정서가 서서히 싹트고 있다. 예언대로라면 반 유대인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초강대국의 지위를 내 놓게 될 지도 모른다. 한국정부도 국가의 현실적 실리를 위해서라도 반 유대인 정책을 취하는 듯한 내색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

세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 수립을 하려면 정부기관에 유대인 연구부서도 꼭 설치하기를 권하고 싶다.

세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 수립을 하려면 정부기관에 유대인 연구부서도 꼭 설치하기를 권하고 싶다.

어린이들 꿈과 희망 놀이터 깨끗이 사용

어린이들은 그 사소한 장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키우며 심신도 단련하고 정서적 안정도 찾는다. 흙속의 놀이가 어린이들에게는 한없이 소중한 교육의 장소인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가 청소년들과 어른들에 의해 망가지고 더럽혀지기 일쑤다. 깨진 돌맹이와 캔을 비롯해, 쓰레기, 술취한 일부 어른들이 깨워낸 흔적 등도 방치되고 있다. 공사자들도 쓸어 준다.

바람에 날산한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변한

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경비원들이 관리를 하지만 주책의 놀이터는 다르다. 하룻밤새 청소년들과 취객들이 버린 담배꽂, 쓰레기 등이 수북히 쌓여 있을 때도 많다. 구청 직원들이 매일 놀이터를 살필 수는 없는 노릇, 그렇다면 주민들 스스로 나서 관리하고 배려해야 한다. 내가 보살피 주는 만큼 내 자녀와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영희·광주시 서구 양동